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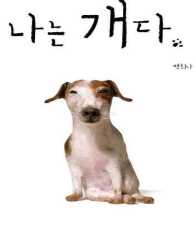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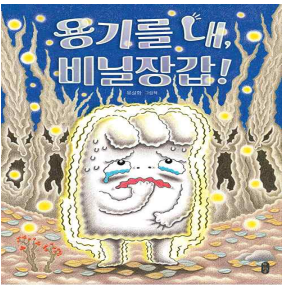


# 2023년 책꾸러미 후보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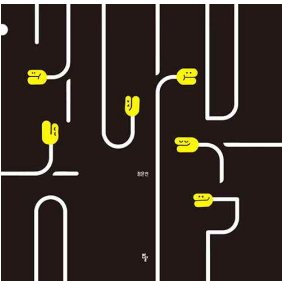

## >> 4단계 짚쑥쑥(6~7세 대상)

| 연번 | 서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도 | 비고 |
|----|--------------|-----|--------|------|----|
| 1  | 감기 걸린 날      | 김동수 | 보림     | 2022 |    |
| 2  | 궁디팡팡         | 이덕화 | 길벗어린이  | 2019 |    |
| 3  | 근데 그 얘기 들었어? | 밤코  | 바독이하우스 | 2018 |    |
| 4  | 김철수빵         | 조영글 | 봄별     | 2022 |    |
| 5  | 껌            | 강혜진 | 향      | 2020 |    |

## >> 4단계 푸욱푸욱(6~7세 대상)

|    |                     |            |             |             |   |
|----|---------------------|------------|-------------|-------------|---|
| 6  | <b>나는 개다</b>        | <b>백희나</b> | <b>책읽는곰</b> | <b>2019</b> |    |
| 7  | <b>슈퍼토끼</b>         | <b>유설화</b> | <b>책읽는곰</b> | <b>2020</b> |    |
| 8  | <b>연이와 버들도령</b>     | <b>백희나</b> | <b>책읽는곰</b> | <b>2022</b> |   |
| 9  | <b>왼손에게</b>         | <b>한지원</b> | <b>사계절</b>  | <b>2022</b> |  |
| 10 | <b>용기를 내, 비닐장갑!</b> | <b>유설화</b> | <b>책읽는곰</b> | <b>2021</b> |  |

## >> 4단계 푸욱푸욱(6~7세 대상)

|    |          |     |       |      |   |
|----|----------|-----|-------|------|---|
| 11 | 이런, 개복치! | 이선주 | 킨더랜드  | 2021 |    |
| 12 | 척        | 장순녀 | 봄개울   | 2022 |    |
| 13 | 콩나물      | 정은선 | 반달    | 2022 |  |
| 14 | 털털한 아롱이  | 문명예 | 책읽는곰  | 2020 |  |
| 15 | 팔빙수의 전설  | 이지은 | 웅진주니어 | 2019 |  |

누군가 나약하거나 소심한 태도를 보일 때 우스갯소리로 '개복치 같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은 작은 일에도 툭하면 쉽게 죽는다고 알려진 개복치 때문에 생긴 말인데, 이건 모두 사실이 아니다. 알에서 막 태어난 새끼 개복치는 1m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3억 개의 알을 낳아도 성체까지 무사히 자라나는 개복치는 한두 마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생존율이 낮아 개복치가 작은 일에도 쉽게 죽는다는 편견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런, 개복치!>는 그런 개복치에 관한 오해를 재미있게 풀어낸 그림책이다.

강아지 갸돌이가 엄마랑 낮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드럭 드럭!' 낮선 소리가 들린다. 마침 낮잠 자기 싫었던 갸돌이가 깜짝 놀란 척 벌떡 일어난다. 엄마가 나가자 말라는데도 갸돌이는 못 들은 척 왔다 갔다 하다가 망설이는 척 주춤하더니 대문 밖으로 나간다. 갸돌이가 걱정되었던 엄마는 몰래 그 뒤를 쫓아간다. 갸돌이는 술래인 척 소리를 찾아 두리번거리지만, 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갸돌이는 실망스러웠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오줌을 싸아! 그런데 달팽이가 보고 있다. 갸돌이는 부끄럽지 않은 척 성큼성큼 걸어가 다른 놀이를 찾는다. 때마침 나비 친구도 만난다. 무서워도 무섭지 않은 척, 힘들어도 힘들지 않은 척, 신나고 즐거운 갸돌이의 첫 동네 산책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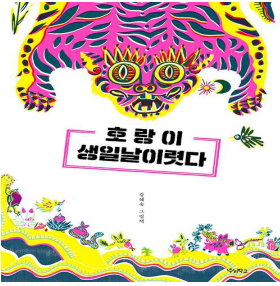

서로라서 빛나고, 서로라서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작가는 어느 날 문득, 콩나물을 보며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떠올렸다. 함께 모여 자라는 콩나물처럼, 누군가가 옆에서 함께해야 아름다운 빛을 내며 자랄 수 있는 우리를 말이다. 때로는 뻑뻑한 콩나물시루처럼 딱 막힌 듯 답답할 때도 있지만, 서로가 주는 온기로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낸다.

우리 집 강아지 아롱이는 털이 엄청 많고, 또 엄청 빠진다. 우리 집은 금세 아롱이의 털로 가득 차고, 숲속에는 따끈하고 폭신한 털집이 있다는 소문이 짹 퍼진다. 찬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포근한 보금자리를 찾고 싶은 동물 친구들이 줄지어 털집으로 몰려드는데....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반려견의 털 한 올에서 출발한 유쾌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그림책이다.

깊은 산속에서 할머니가 혼자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 탕글탱글 과일이 익어 가고 달달구수한 단팥죽이 완성되자, 시장 내다 팔기 위해 할머니는 길을 나선다. 그런데 가는 길에 갑자기 눈이 펄펄 내리더니, 새하얗고 커다란 눈호랑이가 떡하니 나타나는데....  
기발한 상상과 매력적인 캐릭터가 빛어낸 유쾌, 통쾌, 훈훈한 그림책이다.

팔빙수의 전설

## >> 4단계 주옥주옥(6~7세 대상)

|    |            |     |       |      |   |
|----|------------|-----|-------|------|---|
| 16 | 호랑이 생일날이켰다 | 강혜숙 | 우리학교  | 2022 |  |
| 17 | 흥칫뿡        | 수아현 | 현암주니어 | 2018 |  |

우리나라 민화와 민담 속 호랑이를 새로 엮은 그림책이다. 민화와 민담 속 호랑이들이 한배에서 나고 자란 아홉 마리 호랑이 형제로 재탄생하여 독특하고 아름다운 매력과 재미를 보여 준다.

잔뜩 뽀이 난 아이의 마음속을 글로, 아이를 보듬기 위해 애쓰는 이웃과 가족들의 따뜻한 마음을 그림으로 담은 그림책이다. 내 얘기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 섭섭했던 어느 날 벌어진 소소한 소동은 아이에게 더없이 특별한 경험을 선물한다. 자신을 향한 따뜻한 배려를 만나게 된 아이의 특별한 하루를 그린 이 책은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격언에서 영감을 받아, 쓰고 그린 책이다. 동네 구석구석 정겨운 풍경들, 곳곳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들까지 이야기 속에 깨알 같은 재미를 더한 귀여운 그림책이다.